百濟 吏讀에 對하여*

金永旭**

요 약

百濟에는 吏讀가 없었다는 것이 學界의 定說이다. 筆者는 百濟 時代의 一次資料들에 對한 解讀作業을 通하여 百濟時代에도 吏讀가 存在했음을 確認하였다. 百濟武寧王陵出土 誌石의 全文을 解讀해 본 結果, 前半部는 韓國式語順의 文章으로 씌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誌石의 銘文이 發生初期의 吏讀였음을 意味한다. 그 外에도 誌石 全文에 나타나는 語彙, 文體 等에서 筆者는 百濟固有의 表現들을 確認할 수 있었다.

夫餘陵寺遺跡址出土 百濟木簡은 現在까지 國語國文學界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筆者가 이것을 解讀해 본 結果, 木簡에 筆寫된 全文이 百濟固有의 語法으로 이루어진 百濟詩歌임을 確認할 수 있었다. 百濟時代 當時의 사람에 依해 直接記錄된 百濟詩歌가 至今까지 學界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筆者는 이 글에서 論議한 百濟詩歌가 國文學史上 最古의 百濟詩歌임을 밝혔다.

*핵심어: 百濟, 吏讀, 武寧王陵誌石, 夫餘陵寺, 木簡, 百濟詩歌.

---

* 武寧王 關聯 資料들을 收集하는 過程에서 助力한 尹善泰(서울市立大 國史科 講師) 先生과 金潤珠(서울市立大 國史科 助敎) 孃에게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武寧王陵誌石을 발굴하고 전시한 國立公州博物館 館長 이하 여러 關係者들과 百濟木簡을 발굴하고 전시한 國立夫餘博物館 館長 이하 여러 關係者들에게도 깊은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 서울市立大學校 國文科

1. 目標와 對象

發生 初期의 吏讀文은 '韓國式 漢文'이었다. 初期의 吏讀 資料에는 漢文과 韓國式 語順의 文章이 混在하였다. 蔚山 川前里 刻石의 銘文에는 '善石得造'라는 韓國式 漢文과 '始得見谷'과 같은 漢文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그 좋은 例이다. 韓國式 漢文과 純粹한 漢文의 混在 段階를 지난 後에야 비로소 '韓國式 語順의 吏讀'가 登場한다. 다음은 壬申誓記石의 吏讀文이다. '壬申年 六月六日 二人 幷誓記 天前誓 今自 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 大亂世 可容行誓之' 이것은 漢字들이 韓國式 語順으로 排列된 吏讀文으로 初期 段階에서 좀더 發展한 것이다.

藤本幸夫(1988:211)는 百濟에도 吏讀가 있다고 하였다.[1] 日本의 七支刀 銘文과 百濟의 武寧王陵 出土 銀釧 銘文이 吏讀라는 것이다. 武寧王陵 出土 銀釧에는 '庚子年 二月 多利 作'이라는 銘文이 은팔찌 안쪽에 새겨져 있다(<圖 9> 參照). 南豊鉉(2000:32)에서는 銘文이 韓國式 語順이기는 하지만 餘他의 證明 資料가 없어서 百濟 吏讀의 存在 確認이 어렵다고 하였다.

百濟는 알다시피 七世紀頃 羅唐聯合軍에 敗亡하였다. 이로 因하여 百濟에 關한 記錄은 中國 史書나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等에서 斷片的으로 傳할 뿐, 그 詳細한 歷史의 記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當時의 文字 生活에 關한 一次資料들도 稀罕하여 南豊鉉 先生의 見解처럼, 百濟의 吏讀에 關한 硏究가 어려운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誌石의 銘文, 瓦文, 塼文, 木簡, 裝身具 銘文 等等의 文字 遺物들을 하나하나 蒐集하다 보면 百濟 吏讀의 硏究가 不可能한 것만은 아니다.

百濟의 高興 博士에 關한 記錄은 百濟 吏讀의 存在를 示唆하고 있

1) 여기에 關한 仔細한 論議는 南豊鉉(2000:32)를 參照할 수 있다.

다. 三國史記 卷第二十四의 百濟本紀 第二에 실려 있는 近肖古王 三十年 記錄에는 '古記云 百濟開國以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何許人也'라는 內容이 傳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得博士高興始有書記'이라는 句節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 記錄을 吟味하게 되면 高興博士가 百濟의 表記法을 整理하고 制定한 人物이 아닌가 하는 斟酌을 하게 된다.[2] 이 事實을 支持하는 一次資料가 아직까지 發見되지는 않았지만 이 記錄의 價値는 '新羅의 薛聰에 關한 記錄'과 比肩할 만하다.

'新羅 薛聰에 關한 記錄'은 新羅語 硏究의 出發點이라고 할 程度로 意義가 있다. 이것을 端緖로 삼아 여러 學者들이 硏究를 거듭한 結果, 지금은 薛聰이 살았던 時期와 비슷한 時代의 新羅語 資料까지도 論議할 수 있는 段階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高興의 時代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아득하기는 해도 旣存한 資料들을 열심히 모으고 整理하다 보면 百濟語에 關한 意外의 所得도 期待하지 말라는 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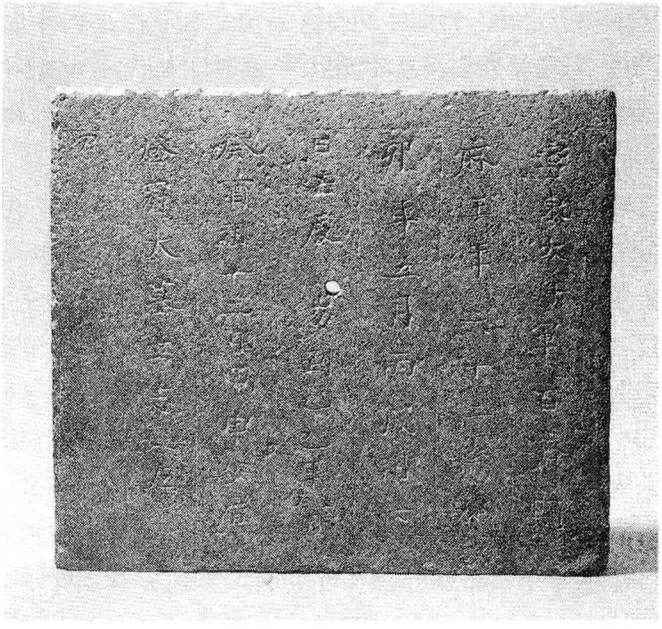
이 글의 目的은 百濟 吏讀의 存在를 確認하는 데에 있다. 武寧王陵 出土 誌石의 言語學的 檢討로부터 百濟 吏讀에 關한 論議를 始作할 것이다. 王의 誌石이 一九七一年 七月 公州에서 發見된 以來로 成周鐸(1971)과 李丙燾(1972)에서 銘文의 解讀이 행해진 바가 있었다. 그러나 完全히 解讀된 것은 아니었다. 至今까지도 解讀되지 못한 文字가 있으며 誤讀한 文字도 있다. 解讀者의 異見이 紛紛한 句節도 있다. 筆者는 國語史의 觀點에서 武寧王陵 出土 誌石의 銘文들을 하나씩 解讀해 나갈 것이다. 미리 말해 두지만 誌石의 銘文에는 韓國式 漢文과 純粹한 漢文이 混在한다. 漢文의 百濟式 表現도 確認할 수 있다.

最近에 忠南 夫餘의 陵寺 遺跡地에서 여러 가지 木簡들이 出土되었다. 그 中에는 四言四句體의 百濟 詩歌도 있다.[3] 그것은 民謠風의

2) 여기에 關해서는 李崇寧(1983:6)을 參照할 수 있다.
3) 國立夫餘博物館(2002:102)를 參照.

百濟 歌謠로 百濟人의 人生觀과 佛敎的 情緖가 짙게 배어 있다. 이것의 國文學史的 重要性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것이 初期 吏讀의 痕迹이 배어 있다는 點에서 國語學者들이 注目할 理由가 充分하다. 餘他의 塼文, 銀釧文 等에서도 吏讀文들을 發見할 수 있다. 筆者는 이러한 百濟 文字 遺物 資料들을 살펴봄으로써 百濟 吏讀의 存在를 確認하고자 하는 것이다.

2. 武寧王 誌石



<圖 1>

王과 王妃의 誌石이 武寧王陵에서 發見되었다. 이 誌石은 세로

35.2㎝, 가로 41.5㎝, 두께 4㎝의 長方形 靑灰色 角閃岩이다.[4] 全文은 七行 五十三字[5]로 이루어져 있으며 字徑은 평균 2.5㎝ 정도이다. 잘 다듬어진 平板 磨石의 銘文에는 南朝風의 流麗優雅한 글자들이[6] 새겨져 있다.

銘文은 成周鐸(1971)에서 最初로 判讀되었다. 다음은 成周鐸 先生의 判讀文이다. '寧東大將軍百濟斯(1行) 麻王年六十二歲癸(2行) 卯年五月丙戌朔七(3行) 日壬辰崩至乙巳年八月(4行) 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5行) 登冠大墓立志如左(6行)' 위의 判讀文에는 두 가지 誤謬가 있다. 첫째, 第四行 第五字의 '到'를 '至'로 誤讀하였다. 둘째, 第七行에 새겨진 文字에 대해서는 認識조차 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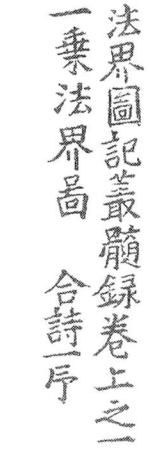
李丙燾(1972)에서는 이러한 誤謬들이 補完되었지만 完全하지는 못했다. '至'의 誤讀은 矯正했지만, 七行 第一字를 文字로 認識했다는 點에 있어서는 成周鐸(1971)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이것을 解讀하지 못한 채, '疑問 符號 (?)'로만 남겨 두었던 것이다. 李丙燾(1972) 以後로 成周鐸·鄭求福(1991)에서 判讀文이 綜合整理되었지만 第七行의 第一字는 王陵이 發見된 지 三十二年이 지난 오늘날에도 解讀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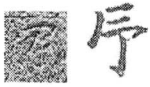
問題의 文字는 그 字形이 旣存의 字典에는 登載되어 있지 않다. 이와 類似한 字形조차 어떠한 古金石文이나 古書籍에서도 發見된 적이 至今까지는 없었다. 때문에 先學들이 이것을 解讀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斟酌할 따름이다. 그런데 筆者가 高麗大藏經을 살펴보다가 興味로운 事實을 發見하게 되었다. 거

4) 石質에 對해서는 李丙燾(1972:7)에 記述되어 있다.
5) 성주탁(1971:210)에는 52字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맨 마지막 글자인 '卬'字를 빠뜨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맨 마지막 글자는 이제까지 해독된 바가 없었다.
6) 誌石의 書體에 對한 講評은 任昌淳(1983:40)을 參照할 수 있다. 誌石의 字形이 400년대의 北魏 資料와 比較하면 南朝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北朝系라는 主張도 있다(佐竹保子 1984).

기에는 義相 大師가 撰한 '法界圖記叢髓錄'이 補遺로 실려 있다. 여기에는 義相 大師의 核心 思想인 海印三昧에 關한 說明과 華嚴一乘 思想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七言三十句의 盤詩로 具現한 義相 大師의 法界圖(海印圖)에 對한 解說이 펼쳐져 있다.



<圖 2>



<圖 2>는 冊의 앞부분이다. 여기에는 '一乘法界圖 合詩一印'라는 句節이 새겨져 있다. 一乘의 眞理를 傳하는 法界圖는[7] '詩를 合하여 만든 하나의 圖章'이라는 뜻이다. 法界圖는 七世紀頃 唐에서 流行하던 盤詩로서, 전체가 七言三十句로 創作된 것이다. 이때의 '印'은 一乘 法界의 眞理를 象徵하며 海印의 '印'과 佛印의 '印'과도 相入相卽한다.

여기에서 '法界圖記叢髓錄'에 板刻된 '印'의 字形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字形이 旣存의 書道 字典이나 書體 辭典에 登載된 餘他의 '印'과는 差異가 있다. 印字의 部首字인 '卩'의 筆劃이 '丁'字와 類似하다. <圖 2>의 '印'을 問題의 文字와 比較하면 筆劃의 共通點을 발견할 수 있다.

誌石의 文字도 部首字인 '卩'의 筆劃이 '丁'과 類似하게, 세로획의 끝이 치솟아 있다. 左邊의 '𠂤'字에서 첫 번째 가로획이 曲線처럼 되어 있지만 <圖 2>의 '印'은 다소 비스듬한 直線에 가깝다. 이들 사이에 曲直의 差異는 있지만 나머지 筆劃의 意趣는 同一하다. '一乘法界圖 合詩一印'의 경우 以外에도, 義相大師의 冊 속에서 이러한 용례들을 더 찾을 수 있다. 책갈피를 넘기다 보면 '海印以普賢向內則十仏 十仏向外則普賢故'이라든지 '心印' 等의 句節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도 <圖 2>의 '印'과 同一한 異體字가 使用되었음을 確認할

7) 合詩의 全體 形相이 正方形의 圖印처럼 되어 있어서 法界'圖'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수 있다.[8]

그렇다면 斯麻王의 誌石에 '印'을 새겨 넣은 理由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印' 字를 文字 그대로 '圖章을 찍었다'는 意味로 解釋하여 '글이 끝났음'을 表示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9] 그러나 이러한 解釋에는 問題點이 있다. 印字를 그런 意味로 刻入했다면 第六行의 '立志如左' 下에 남겨진 空間을 說明할 수가 없다. 만일 印字가 文章을 終結한다는 意味로 使用되었다면 이것은 文章이 끝나는 立志如左의 바로 아래에 空白 없이 刻入되었어야 할 것이다. 問題의 '印'字는 行을 區分하여 第七行에 刻入되었던 것이다.

行을 바꾼 데에는 그만한 理由가 있을 것이다. 移行의 意味는 印字가 立志如左로 終了된 銘文과는 別個임을 表示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墓誌를 새긴 石手의 手決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推理는, 板刻의 境遇와는 달리, 墓誌에는 이러한 事例를 發見하기 어렵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 筆者는 '印'의 意味를 葬儀와 關聯된 百濟人의 風習으로 理解하고자 한다. 印字는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佛印'의 뜻으로도 解釋된다. '印'을 墓誌에 새긴 것은 極樂往生을 念願하는 大王의 마음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誌石의 '印'이 百濟人들의 生死觀과 關聯된[10] 象徵이었던 셈이다. 被葬者는 佛印을 極樂往生할 수 있는 保證印으로 삼았던 것이다.[11]

---

8) 筆者는 이것이 異體字의 一種일 것으로 斟酌하고서 異體字 關聯 書籍 및 圖錄들을 살펴보았다. 問題의 文字를 判讀하는 過程에서 많은 도움을 준 權仁翰 敎授(成均館大)에게 깊은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9) 後代 吏讀 資料, 특히 分財記에서는 물려줄 財産의 目錄 끝에 '印'을 쓰기도 한다.

10) 武寧王陵의 墓誌에 對한 解釋을 通하여 百濟人의 生死觀이 무엇이었는지에 對한 序說的인 論議는 張寅成(2000)을 參照할 수 있다.

11) 이와 類似한 境遇가 다른 곳에서도 發見된다면 이러한 解釋은 蓋然性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以上의 論議를 綜合한 筆者의 判讀文이다. 銘文의 前半部는 韓國式 語順으로 되어 있고 後半部는 漢文으로 되어 있다. 各行의 글자 수는 一定하지 않은데 興味로운 것은 6行까지는 짝수로만 되어 있고 7行만 홀수이다. 1, 2, 3, 6行은 8字이고 4, 5行은 10字인데 7行의 1字까지 合하면 銘文의 字數는 모두 53字이다.

(1) 斯馬王 誌石 判讀文

1행: 寧東大將軍百濟斯
2행: 麻王年六十二歲癸
3행: 卯年五月丙戌朔七
4행: 日壬辰崩到乙巳年八月
5행: 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
6행: 登冠大墓立志如左
7행: 印

(1)의 判讀文은 內容上으로도 두 部分으로 나누어지지만 글의 形式的인 面에서도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있다. (1)을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누어서 飜譯文을 提示하면 아래와 같다.

(2) 斯麻王 誌石 飜譯文

가. 寧東 大將軍 百濟 斯麻王 年[12] 六十二 歲[13] 癸卯年 五月 丙戌

12) 中國에서는 '春秋 三十一' 程度로 表記하였다(王興之夫婦墓誌: 東晋, 咸康, 341年, 348年, 南京市文物管理委員會 所藏. 劉懷民墓誌: 南朝 宋, 山東城 益都, 464年. 元羽墓誌: 北魏, 501年, 洛陽, 北京中國歷史博物館 所藏).

13) 여기에서 注目할 만한 句節은 '年 六十二 歲'이다. 이것은 韓國語의 數詞 構文과 그 構造가 一致한다. 韓國語의 典型的인 數詞句은 '普通名詞+數冠形詞+單位名詞'로 이루어진다. '年 六十二 歲'는 그 構造가 '年(나이/普通名詞)+六十二(육십이/數冠形詞)+歲(세/單位名詞)'로 한국어의 수사구와 그 구조가 같다. 그러나 南豊鉉 先生님은 '歲'를 '歲次'의 意味라고 解釋하였다. 이런 경

朔 七日 壬辰 崩
영동 대장군인 백제 시마왕은 나이 예순 두 살로 계묘년 오월 병술삭 칠일 임진에 붕하였다.

나.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登冠大墓立志如左
을사년 팔월 계유삭 십이일 갑신에 이르러 등관대묘에 안초하니 입지는 여좌하다.
印(인)

(2가)는 韓國式 語順이다. 필자는 銘文에 刻入된 漢字들을 順序의 變動없이 文脈에 附合하는 助詞와 語尾만 添加하여 飜譯하였다. 이렇게 飜譯해도 現代國語의 文語體와 比較해서 遜色이 없을 程度의 韓國語 文章이 된다. 이것은 誌石의 言語가 中國語의 境遇와는 다른 것을 意味하며 銘文이 韓國語 語順으로 作成되었음을 밝히는 重要한 文法的 根據이다. (2나)에서 注目할 만한 것은 '厝'이다. 厝는 用例가 稀罕하여 誤讀하는 事例가 있었다.[14] 厝는 '置'의 意味로 사용될 때에는 그 音價가 倉故切(音 醋)이었다.[15] 따라서 '安厝'는 '安置'로 解釋하고자 한다.

(2)의 飜譯文을 通해서 알 수 있듯이 誌石 銘文은 韓國式 語順과 漢文이 混在한 發生 初期의 吏讀文이었다. 王妃 誌石, 百濟詩歌, 塡文, 銀釧文 等을 分析하게 되면 百濟 吏讀의 存在가 自明해질 것이다. 다음에는 銘文의 解釋과 關聯하여 語彙를 中心으로 몇 가지 事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寧東 大將軍'은 中國史書에 記錄되어 있다. 이

우에 '年'이 왜 중복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지만 선생님의 指摘에는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14) 武寧王 誌石은 現在 國立 公州 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編纂한 國立公州博物館(1999:18)에는 이것을 '厝(무소 서)'로 判讀되어 있다.

15) '礎'의 意味로 使用될 때에는 倉各切이다. 李圭甲 編(2000:88-89)을 參照할 수 있다.

것은 梁 高祖의 詔勅에 依해 武寧王에게 附與된 것이다. '高祖 詔曰 … 鎭東大將軍 百濟王 餘隆 守藩海外 … 朕有嘉 … 可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寧東大將軍 百濟王(梁書 百濟條)'[16] 斯麻王의 諡號인 武寧王의 '寧'도 寧東大將軍의 '寧' 字와 關聯이 있다.[17]

'斯麻'는 武寧王의 諱인데 '斯' 字의 音價를 旣存의 韓國 古代史 硏究에서는 '사/sa'로 推定하였다. '시/si'가 옳다. 三國史記에서 '斯羅'와 '尸羅'가 同一한 音으로 表示되었다. Karlgren(1966:243)에서도 '斯'가 *sie로 再構되었다.[18] 斯麻의 所從來에 關한 記錄은 日本書紀에서 찾을 수 있다. '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則末多王異母兄也 琨支向倭時 至筑紫嶋 生斯麻王 自嶋還送 不至於京 産於嶋 故因名焉(日本書紀 卷第十六)'[19] '*시마(斯麻)'는 그 意味가 '島'이다. 中世 韓國語에서는 이것이 一音節로 縮約되어 '셤'으로 表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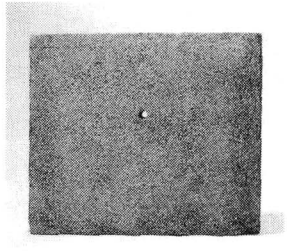
誌石의 曆日은 元嘉歷法을 따랐다.[20]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에서 癸卯年은 西紀 523年이다. '崩'은 禮記의 記錄에 依하면[21] 天子의 死亡時에 使用하였다. '崩'이라는 表現을 通하여 百濟의 國力과 百濟人의 自負心을 顯揚하게 한다.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에서 乙巳年은 525年이다. 王의 屍身을 死亡後 2年 3個月餘 殯하였다가 登冠大墓에 安厝하였던 것이다.[22] 登冠大墓는 '冠을 올린 큰 무덤'

16) 여기에 對해서는 國史編纂委員會 編(1986:540)을 參照할 수 있다.
17) 誌石에 武寧王 代身 斯麻王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斯麻가 諱임에 틀림없다. 諡號는 死亡 後에 亡者의 行蹟을 勘案하여 주어진다. 武寧王은 '武'와 '寧' 두 개를 合成한 것으로 보이는데 前者는 固有名이고 後者는 中國과 關聯이 있는 듯하다.
18) '斯'의 音價 推定에 對한 仔細한 論議는 權仁瀚(2002:84-85)을 參照할 수 있다.
19) 여기에 對해서는 小島憲之 外 校註(1998:278)를 參照할 수 있다.
20) 元嘉曆法에 따른 曆日 計算法에 對해서는 李殷晟(1984)에서 精密하게 提示한 바 있다.
21) 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禮記 上卷 曲禮下 卷二).
22) 殯하는 風習은 高句麗에도 있었다.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隨書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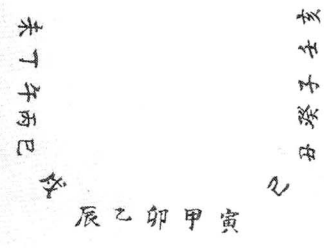
인데 武寧王陵을 높여서 일컬은 것이다.

'立志如左'의 '左'에 關한 解釋에 對해서, 誌石 後面의 方位圖와 關聯이 있다는 見解가 있다(李丙燾 1972).[23] '左'는 뒷면의 方位圖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後面의 指示語로 '왼쪽'을 意味하는 '左'가 使用된 用例가 없다는 데에 있다. 韓國式 漢字語에는 '左右間에'라는 表現이 있다. 이것을 解釋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兩端間)'이다. '立志如左'의 '左'도 굳이 왼쪽이나 뒷면과 같이 位置를 表示하는 것으로 解釋하기보다는 '이와 같다' 정도로 解釋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立志如左'를 '대묘를 세운(만든) 뜻이 이와 같다'로 解釋할 수 있는데[24] 이것은 純粹한 漢文이라기보다는 百濟式 漢文 表現인 셈이다.

武寧王 誌石의 後面은 陵墓의 方位圖이다. <圖 4>는 <圖 3>에 새겨진 銘文을 判讀하여 보기 쉽게 再現한 것이다. 誌石의 中央穴은 方位圖와 關聯된 裝置로 斟酌된다. 誌石의 後面에는 干支에 該當하는 17字가 刻入되어 있다. 여기에 對해서는 語學的인 觀點에서 論議할 餘地가 없으므로 挿圖를 提示하는 것에 그친다.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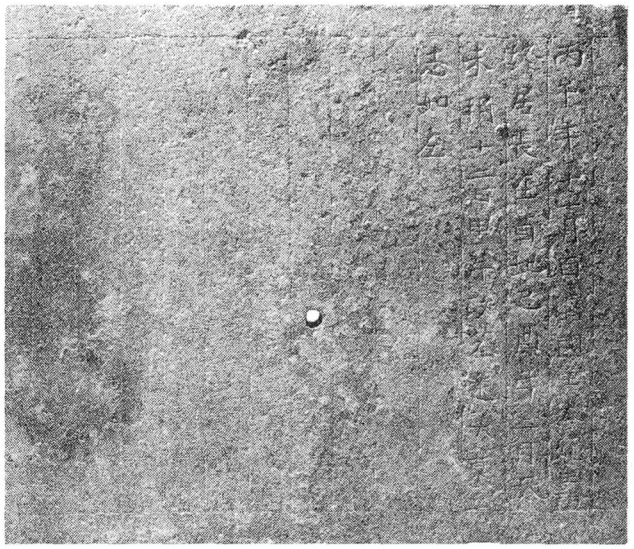
<圖 4>

夷傳 高麗)'.

23) 李丙燾(1972)에 關한 批判的 論議는 成周鐸·鄭求福(1991)을 參照할 수 있다.

24) '이와 같다'에서 '이'가 指示하는 內容은 앞에서 敍述한 內容 全體를 가리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3. 王妃 誌石



<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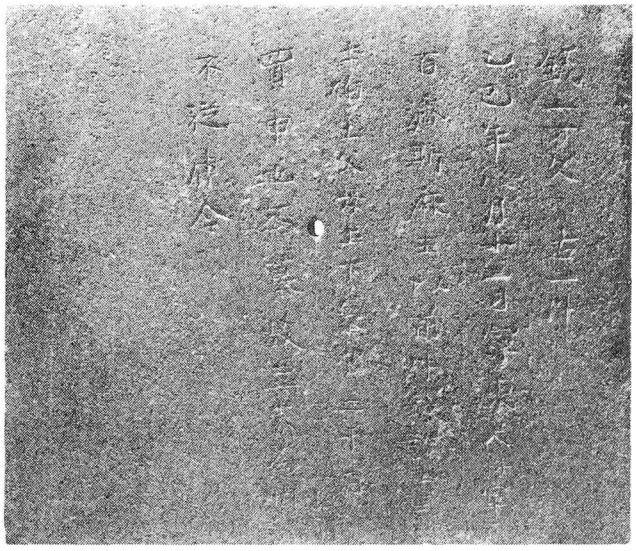
王妃 誌石은 王의 誌石과 材質 및 製作 年代가 同一하다. 銘文은 後日 王妃의 合葬時에 刻入되었다.[25] <圖 5>는 誌石의 前面이다. 다음은 成周鐸(1971)의 判讀文이다. '丙午年十二月百濟王大[26]妃壽(1行) 終居喪在酉地己酉年二月癸(2行) 未朔十二月甲午改遷葬大墓立(3行) 志如左(4行)' 判讀文은 第三行의 第九字, 第十字에서 失手가 있었다. '改遷葬'이 아니라 '改葬還'이다.[27]

銘文은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있다. 前部는 王誌石과 마찬가지로 韓國式 語順이다. 飜譯文은 다음과 같다. '丙午年 十二月에 百濟王의 太

25) 여기에 對해서는 李丙燾(1972:9)의 見解를 參照하였다.
26) '大'는 '太'이다.
27) 여기에 對해서는 成周鐸·鄭求福(1991)을 參照할 수 있다.

妃가 壽를 終하였다.' 丙午年은 成王 4年으로 西紀 526年頃이다.[28] 武寧 王妃을 太妃라고 表現한 것은 王妃가 成王의 母后였기 때문이다. 壽終은 死亡했다는 意味이다. 이러한 表現에 對한 宗敎的, 哲學的 解釋이 多樣하다.[29]

後部는 漢文이다. '居喪 在酉地 己酉年 二月 癸未朔 十二日 甲午 改葬 還大墓 立志如左'의 飜譯文은 다음과 같다. '居喪은 酉地에 있고 己酉年 二月 癸未朔 十二日 甲午에 改葬하여 大墓로 돌아왔다. 세운 뜻은 이와 같다.' 居喪은 亡者를 殯所에 모시는 것을 뜻한다. 酉地는 酉方(正西方)을 가리키며 殯이 位置하였던 場所이다. 王妃 誌石 銘文도 王의 境遇와 같이 百濟式 表記가 反影된 初期의 吏讀文이었다.



<圖 6>

28) 12月은 陰曆과 陽曆이 交叉하는 달이기 때문에 丙午十二月이 西紀527年일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29) '壽終'의 解釋에 對한 最近의 論議로는 張仁成(2000)을 參照할 수 있다.

誌石 後面의 銘文(<圖 6>)은 墓地 買入과 關聯된 一種의 契約書이다. 다음은 成周鐸(1971)의 判讀文이다. '錢一万文 右一件(1行)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2行)[30] 百濟斯麻王以前件訟土王(3行) 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4行) 買申地爲墓故立卷爲明(5行) 不從律令(6行)' 여기에는 三種의 誤謬가 있다. 第三行 第七字인 '訟'은 '詢'이며 第四行 第六字 '上'은 '土'이다. 第五行 第八字의 '卷'은 '券'이다. '詢'과 '券'은 李丙燾(1972)에서 矯正되었다.

그러나 '土'는 事情이 다르다. 成周鐸(1971) 以後, 現在까지의 諸 論文에서 을 '上'으로 解讀하였던 것이다. 問題의 文字를 '上'으로 判別하면 上橫劃과 下橫劃 中間에 찍힌 點을 說明할 수가 없다. '土'의 古字에는 土字의 兩橫劃間 右側에 點이 있었다. 問題의 文字에서도 點劃을 確認할 수 있다. '上'으로 判讀하면 文脈도 不可解하다. '土王, 土伯, 土父母'가 羅列된 까닭에 다음의 句도 '土下衆官'이 自然스럽다.

다음은 筆者의 判讀文이다. '錢一万文 右一件 乙巳年 八月 十二日 寧東 大將軍 百濟 斯麻王 以前件 詢土王土伯土父母土下衆官二千石 買申地爲墓故 立券爲明 不從律令(전 일만 문. 위의 일건은 을사년 팔월 십이일에 영동대장군인 백제 시마왕이 전건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 토하중관 이천석[31]에게 알려서 신지를 매입하여 묘를 삼은 고로 문권을 만들어 명백히 한다. 율령에는 따르지 않는다).'

'錢'은 當時에 通用되었던 五銖錢이다. '文'을 '枚'로 解讀한 境遇가 있다.[32] 問題는 '枚' 字를 '攵' 字처럼 書寫한 境遇를 찾기 어렵다는 데

30) 李丙燾(1972)에서는 <圖 6> 2行의 第六字인 '二' 字를 '一'字로 誤讀하였다. 이러한 失手는 李殷晟(1984:44)에서도 反復되었는데 最近까지도 이어지고 있다(張仁成 2000:163).

31) 二千石은 祿額을 意味함. 成周鐸·鄭求復(1991)을 參照.

32) 여기에 대해서는 國立公州博物館(1999:20)을 參照할 수 있다. '枚'로 解釋한 理由에 대한 說明이 없어서 筆者 나름대로 斟酌하자면 이것이 銘文에 '攵'로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枚'에서 '木'이 省略된 것으로 類推하여 '枚'로 解釋한

에 있다. '文' 字를 '夂' 字와 類似하게 書寫한 例는 王羲之 書體에서 確認할 수 있다(赤井淸美 編 1992:1006). 文脈上으로도 '文'이 自然스럽다. '枚'는 종이를 세는 單位이고 '文'은 金錢을 세는 單位이기 때문이다.[33]

前件은 錢一万文을 가리킨다. 土王, 土伯, 土父母 等은 賣渡人에 該當한다. 斯麻王은 墓地의 買受人이다. 王이 墓地를 地神으로부터 買入한 事實이 興味롭다. 이것은 東漢의 遺習에서 由來한 것인데 南朝에 影響을 미친 道敎 思想이 當時의 百濟에까지 流入된 것으로 斟酌된다(周裕興 200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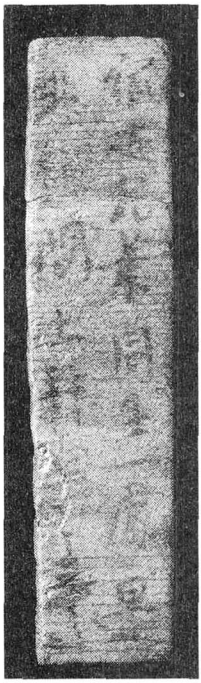
'不從律令'은 漢文이지만 그 속에 百濟式 表現의 痕迹을 發見할 수 있다. 中國에서 道士들이 呪文을 暗誦할 때에 '急急如律令'이 으레 따라 붙었다.[34] 이 句節를 百濟式으로 表現한 것이 '不從律令'이다. 勿論 中國의 '律令'과 誌石의 그것과는 意味가 正反對이다. 道士의 境遇는 俗世를 超越한 律令임에 比해 誌石의 그것은 世俗的인 律令이다. 그러나 全體的인 意味는 兩者가 同一하다. 道士의 '急急如律令'이나 誌石의 '不從律令'은 모두 世俗의 律令을 超越하여 天道에 歸依하기를 願한다는 意味를 含蓄하고 있다.

것이 아닌가 한다.

33) 韓國에서는 傳統的으로 金錢을 세는 單位가 '文'이었다. 가령 常平通寶를 셀 때에는 單位로 '文'을 썼으며 1文은 大體로 1貫의 千分之一인 1돈에 該當되었다. 위의 文脈에서 '錢'은 五銖錢을 가리키므로 枚보다는 文이 適切하다.

34) 여기에 대해서는 李基東(2001:25)을 參照할 수 있다.

4. 木簡


<圖 7>

筆者는 以上에서 武寧王陵 出土 誌石의 銘文이 百濟의 吏讀文임을 確認하였다. 語學的인 分析을 土臺로 韓國式 語順과 漢文이 混合된 點을 分明히 하였다. 漢文 構成에도 百濟式 表現이 있었음을 解明하였다. 다음에 論議할 資料는 夫餘 陵寺 遺跡地에서 發掘된 百濟 木簡이다.[35] 最近 夫餘 陵寺 遺跡地에서 多量의 木簡이 發見되었다(國立 夫餘 博物館 2002:82-107). 木簡의 形態도 多樣하고 內容도 多種하여 百濟史 硏究의 重要한 一次資料들이다. 本稿에서는 吏讀와 關聯된 一件을 中心으로 論議하겠다.[36]

<圖 7>의 木簡은 完形으로 發掘된 것이다. 遺物 年代의 下限은 七世紀 中葉으로 推定한다. 夫餘 陵寺地는 百濟 敗亡 以前에 存在하였으며 그 以後로 埋沒되어 忘却의 歲月을 지난 다음, 最近에야 비로소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길이 12.7㎝의 板木에는 붓으로 쓴 素朴한 글씨가 比較的 鮮明하게 남아 있다.

---

35) 夫餘 陵寺 出土 木簡 資料는 國立 夫餘 博物館에 展示되었다. '百濟의 文字'라는 圖錄에는 木簡 判讀文도 提示되어 있다. 貴重한 木簡 資料를 發掘하고 이것을 展示하여 一般人은 물론, 이 方面의 硏究者들에게 硏究를 할 수 있도록 配慮를 해준 國立夫餘博物館 館長 以下, 여러 關係者들에게 感謝를 드리며 특히 김규동 선생님(國立夫餘博物館 學藝士)의 配慮에 깊은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36) 判讀文의 確認과 解釋 過程에서 많은 도움을 준 鄭在永(韓國科學技術大 敎養學部 敎授), 이용현(國立中央博物館 文字遺物專攻 學藝士), 佐藤 長門(國學院大學 文學部 助敎授) 세 분 先生님께 깊은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다음은 木簡의 判讀文이다. '宿世結業同生一處是(1行) 非相問上拜白來(2行)(國立夫餘博物館 2002:102-103)' 이 判讀文을 檢討해 본 結果, 判讀의 誤謬가 發見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判讀文 以外에, 問題의 木簡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遺物의 觀點에서 이 木簡의 木質이 무엇인지에서부터 發掘 過程에 關한 詳細한 記錄, 木簡의 形態에 關한 比較 硏究, 木簡의 製作 過程, 流通 經路 等等에 關한 緻密한 硏究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 方面에 門外漢인 筆者로서는 文字를 중심으로 論議를 進行할 수밖에 없다. 木簡의 文字와 關聯된 疑問點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다.

第2行의 '白'字와 '來'字 사이에는 글자 하나가 들어갈 程度의 空白이 있다. <圖 7>의 木簡은 第1行이 9字이고 第2行이 7字이다. 第2行의 마지막 글자인 '來'는 옆의 글자보다 1.5倍 정도 길게 書寫되어 있다. 空白의 意味가 무엇인지, 各行의 字數가 왜 다른지, '來'는 왜 길게 썼는지 等의 疑問이 꼬리를 문다. 長方形의 板木은 完形이 그대로 保存된 것인데[37] 書寫된 글자들은 크기가 서로 비슷하므로 各行에 8字씩 配置되어 均衡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期待되기 때문이다. 字間의 空白도 納得할 만한 理由로 說明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文章이 이어지는 狀況에서 아무런 理由 없이 中間에 空白을 남기는 法이 없기 때문이다.

筆者는 木簡의 形態를 仔細히 檢討한 結果, 위에서 提起된 세 가지의 疑問이 한 가지 理由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問題 解決의 端緖는 木簡의 눌린 자국에서 찾을 수 있다. <圖 7>의 第二行 第六字인 '白'字와 '來'字 사이에는 눌린 자국이 있다. 이것이 原來부터

37) 이것이 完形 木簡임을 알 수 있는 證據는 木簡의 側面을 仔細히 觀察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각이 떨어져 나간 痕迹을 發見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側面에 人工的으로 다듬어진 痕迹이 남아 있다. 이 點에 대해서는 이 方面의 專門家인 이용현 博士(國立中央博物館 學藝士)의 助言에 依存하였다.

눌려진 板木이었는지 書寫가 된 以後에 埋沒된 狀態에서 눌려졌는지가 問題이다. 白의 劃이 눌린 자국에까지 흘러내렸지만 中間에 筆劃이 끊어졌거나 눌려진 痕迹이 없다.[38] 이것은 처음부터 눌려진 狀態의 板木에 글씨가 씌어졌음을 뜻한다. '白'과 '來' 사이의 空白이 생긴 理由도 눌려진 木簡으로 글을 쓰려고 하다보니 白의 아래 부분은 너무 눌려지고 울퉁불퉁하여 글을 쓰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아래 부분의 마지막 글자를 쓸 때에는 다른 글자에 비해 1.5倍 가량의 공백이 있었기에 제법 길게 꼬리를 내린 것이었다.

以上의 論議에 따라, 筆者는 木簡의 16字가 中間에 끊어짐이 없는 하나의 텍스트임을 알게 되었다. 16字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게 되자 이것이 內容上 4部分으로 나눌 수 있으며 各 部分들은 四字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四言四句의 形式을 지닌 텍스트임을 깨닫게 되었다. 筆者의 飜譯文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2) 百濟 木簡의 飜譯文
1구: 宿世結業 (宿世의 結業으로)
2구: 同生一處 (同生一處하니)
3구: 是非相問 (是非를 相問하여)
4구: 上拜白來 (上拜하고 白來하져)

(3) 百濟 木簡의 解釋文
前生의 因緣으로
現世에 함께 하니
是非를 서로 물어
上拜하고 사뢰져

38) 이용현 博士(國立中央博物館 學藝士)가 이 點에 대해서 最初로 言及하였다.

이렇게 配列하고 보니 이것이 짐짓 百濟人의 마음을 담은 素朴한 歌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랫말의 內容은 물론이려니와 木簡의 外樣이 完全하고도 豪奢스러운 것이 아니라, 庶民的인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그것도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한 板木 위에 새겨진 情겨운 글씨라는 點에서 筆者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木簡 內容의 基本的인 解釋과 關聯된 事項들을 점검해 보겠다. '宿世結業 同生一處'에서 '宿世'는 過去世를, '同'은 現世를 뜻한다. '同生'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현세에 같이 태어난 사람, 불도를 함께 수행하는 道伴, 부부, 형제, 이웃 등등', '是非'는 세속적인 是非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是非之心의 의미로 '眞理' 혹은 '事實을 밝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9] 上拜의 경우, 上은 佛陀나 上帝[40] 혹은 尊敬의 對象과 關聯된 것으로 보인다. '白來'의 경우도 '사뢰러 오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세를 사뢴다'는 식의 佛敎的 解釋도 可能하다.

다음은 木簡 텍스트의 形式을 中心으로 論議해 보겠다. 宿世結業은 佛敎的 表現이며 韓國式 漢文 혹은 純粹한 漢文表現이다. 同生一處는 漢文이지만 是非相問이나 上拜白來는 韓國式 漢文으로 해석할 수 있다. 四言四句體이므로 詩經風의 古代詩歌와 形式的으로 類似한 面도 있지만 內容面이나 韻律面에서는 漢詩와 迂遠하다.

木簡에 書寫된 글을 實用文으로 看做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兩人間의 書信 惑은 約束과 關聯된 文書의 一種으로 看做하여 和解를 目的으로 한 實用文으로 利用되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情報 傳達의 機能만을 가진 通報 機能의 밋밋한 散文

39)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한형구 교수(서울시립대 국문과)의 도움이 있었다. 선생님의 지적에 깊이 감사드린다.

40) 이점은 이종묵 교수(서울대 국문과)가 지적하였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글의 內容 속에는 佛敎의 輪廻 思想이 짙게 배어 있고 四言四句의 一定한 形式으로 構成되었기 때문이다. 鄕歌의 風謠를 聯想케 하는 '白來' 等의 表現이 露呈된 點도 勘案할 필요가 있다.

筆者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이것을 百濟詩歌로 判定한다. 첫째, 筆寫된 文章이 四言四句라는 一定한 韻文 形式을 갖추고 있다. 둘째, 韓國語 語順과 漢文이 混在한 百濟 固有의 文體가 確認되었다. 셋째, 情緖的인 表現이 있다. 넷째, 佛敎的인 來世觀을 담고 있다.

作品의 題目은 처음 句節을 따서 '宿世歌'로 한다. 우리는 宿世歌를 通하여 百濟人의 和解 精神과 깊은 信仰心을 알 수 있다.[41] 百濟人의 人間的인 餘裕와 微笑를 느낄 수 있다. 百濟의 傳承 歌謠로는 井邑詞가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口碑 傳承되어 後代의 文獻에 定着된 것일 따름이다.

'宿世歌'는 當代의 百濟人이 創作한 百濟詩歌이다. 宿世歌는 現在까지 發見된 百濟 詩歌 中에서 最古의 作品이다. 내용면에서도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公無渡河歌에서 느낄 수 있는 世俗的인 因緣의 哀切함과는 달리, 宿世歌에서는 世俗에서 벗어난 듯한 超脫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넉넉함과 여유도 느낄 수 있다.[42] 마치 偈頌을 聯想케 하는 宿世歌를 通하여 百濟人의 意識 底邊에 흐르는 佛敎的 情緖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宿世歌는 脫俗과 餘裕의 美學이 배어 있는 百濟 最古의 詩歌이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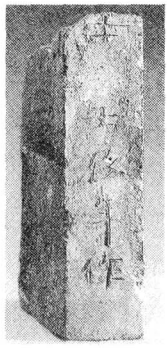
---

41) 이종묵 교수(서울대)는 '숙세가'를 發願詩의 觀點에서 解釋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2)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언술에서 '부처님이 맺어준 因緣으로 우리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世俗의 是非쯤이야 가려서 무엇 하겠소' 하는 듯한 뉘앙스를 읽어낼 수도 있다.

43) 또 한편으로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마치 듣는 이를 어르듯이, '그래, 억울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하는 套의, 百濟人 特有의 징글징글한 너스레가 作品

百濟語의 痕迹은 以上의 論議 以外에도 多數 確認된다. 三國史記, 三國類事 等의 後代 資料를 通하여 再構된 吏讀式 語彙[44]와 梁職貢圖,[45] 中國 史書를 通해서도 그 片鱗들을 收拾할 수가 있다. 塡銘文의 一部인 '壬辰年作(<圖 8>을 參照)'이라든지 藤本幸夫(1988:211)에서 擧論된 武寧王陵 出土 銀釧 銘文의 一部에서 確認할 수 있는, '庚子年 二月 多利作(<圖 9>를 參照)'이라는 句節에서 우리는 百濟 吏讀의 片鱗들을 窺知할 수가 있다.



<圖 8>



<圖 9>

의 裏面에 깔려 있는 듯하여 鑑賞의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이에 한 걸음 나아가 한국인의 정서적 원형을 말하자면, 新羅人의 '固執'과 百濟人의 '餘裕', 高句麗人의 '氣像' 등이 會三歸一하여 韓國人의 原形質이 形成된 것이 아닌가 한다.

44) 百濟 語彙에 關한 硏究 結果는 都守熙(1994:385-430)에 索引되어 있다. 都守熙 先生은 平生 業績인 『百濟硏究』 1·2·3卷의 硏究 結果들을 後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一目瞭然하게 整理하였다.

45) 梁職貢圖는 梁 元帝인 蕭繹(505~554年)이 荊州刺史 時節(526~539)에 編纂한 圖書이다. 現在 中國歷史博物館에 梁나라 것을 底本으로 宋代에 模寫한 것이 傳해지고 있다. 臺灣 古宮博物院에도 模寫本이 傳해지고 있다(國立大餘博物館 1998:88-94). 여기에는 百濟語인 '固麻', '檐魯' 等이 確認되는데 '固麻'를 '所治城'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王이 居住했던 都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斟酌된다. '檐魯'를 '邑'이라 하였는데 中國의 郡縣에 該當되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濟州島의 옛 地名이 '耽羅'였는데 이것은 百濟의 '檐魯'에서 由來한 것이 아닌가 한다.

5. 結言

筆者는 二月에 角筆 調査次 日本을 訪問하였다. 石山寺에서 調査를 마친 後에 小林芳規 先生께서 筆者에게 百濟 木簡의 重要性을 깨우쳐 주셨다. 木簡에서 百濟式 表記나 角筆 痕迹들을 發見할 可能性이 濃厚하다는 것이었다. 四月에 夫餘 博物館에서는 宮南池, 官北里, 陵寺 等에서 出土된 百濟의 木簡들을 展示하고 있었다. 鄭在永 敎授가 筆者에게 夫餘에 함께 가자고 하였다. 筆者로서는 勿失好機의 朗報였다. 當時에 學科에서 進行 中이던 定期 學術 踏査마저 學科長에게 付託하고서 鄭在永 敎授와 함께 夫餘로 向하였다.

博物館에 展示된 木簡을 본 瞬間은 '驚愕과 衝擊' 그 自體였다. 二行十六字의 한 木簡이 韓國語 語順으로 읽히는 것이었다. 博物館을 見學한 以後로 筆者는 木簡의 捕虜가 되었다. 本稿를 準備하는 過程에서는 木簡을 專攻한 이용현 博士, 古書體를 專攻한 佐藤 敎授가 斯界의 知識들을 筆者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同僚會員이자 先輩인 鄭在永 敎授는 여러 가지 文字 遺物 資料들을 筆者에게 紹介하였고 書誌學 및 異體字에 關한 該博한 知識으로 筆者의 感歎을 자아내게 하였다.

五月에는 公州 博物館에 갔다. 거기에서 武寧王 誌石을 보았다. 誌石은 놀랍게도 字劃 하나 磨滅되지 않은 채 保存되어 있었다. 1500年의 歲月이 筆者에게는 瞬間으로 다가왔다. 長方形의 잘 다듬어진 돌 속에서 마치 '百濟여, 永遠하라!' 하는 斯麻王의 獅子吼가 울려 나오는 듯하였다. 誌石의 價値에 對해서 一言以蔽之하자면 '韓國의 로제타石'이라고 할 수 있다. 銘文의 一字一劃, 어느 하나도 所重하지 않은 것이 없다.

誌石을 본 以後로 筆者는 銘文에 關한 論議들을 檢討하게 되었다.

정신 없이 읽다가 보니 未解讀된 文字, 誤讀된 文字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旣存의 誌石 銘文 硏究 業績 中에서 文章에 대한 構造 分析이나 文章의 性格에 關한 論議는 異常할 程度로 하나도 發見할 수가 없었다. 筆者의 寡聞인지는 몰라도, 旣存의 硏究 論文 어디에서도 誌石 銘文이 百濟 固有의 吏讀 文章이라는 點을 論證한 것이 없었다.

百濟 吏讀에 關한 硏究는 이제 그 出發點에 서 있다. 旣存의 百濟語 硏究는 語彙의 再構에 置重하였다. 이에 따라 語彙와 音韻 方面의 硏究에는 成果도 많았다. 그러나 百濟 吏讀에 關한 硏究는 疏忽했다. 이로 因하여 百濟의 吏讀는 韓國 吏讀史에 登載되지 않았던 것이다. 高句麗에서 始作하여 新羅에 傳承되었다는 것이 斯界의 定說이다. 斯麻王 誌石의 存在는 斯界의 定說에 補完을 要請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木簡을 비롯한 百濟 文字 遺物들은 百濟吏讀史 硏究를 促求하고 있다. 誌石과 木簡에 關한 筆者의 管見이 百濟語 硏究에 不無小補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2003. 6. 1. 稿了)

참고문헌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編(2001), 『武寧王陵과 東亞細亞文化』, 예맥 출판사.

國立夫餘博物館 編(1998), 『中國洛陽文物名品展』, 통천문화사.

_____ 編(2002), 『百濟의 文字』, 國立夫餘博物館.

國史編纂委員會 編(1986), 『中國正史朝鮮傳』, 天風印刷株式會社.

權仁瀚(2002), 「古代 韓國 漢字音에 對한 한 考察」, 『문법과 텍스트』, 서울大學校出版部.

金永旭(2003가),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10, pp.47~77.

_____(2003나), 「11世紀 國語 文法形態 硏究－瑜伽師地論을 中心으로－」, 『국어교육』 111, pp.293~312.

南豊鉉(1999), 『吏讀硏究』, 太學社.

都守熙(1982),「百濟前期의 言語에 關한 硏究」,『百濟硏究』特輯號, 學硏文化社.
_____(1994),『百濟語 硏究』3, 百濟文化開發硏究所.
藤本幸夫(1986),「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ことばと 文字』, 中央公論社.
史在東(1974),「武康王 傳說의 硏究」,『百濟硏究』5, 學硏文化社.
_____(1981),「武寧王陵文物의 敍事的 構造」,『百濟硏究』12, 學硏文化社.
成周鐸(1971),「武寧王陵」,『百濟硏究』2, 學硏文化社.
_____·鄭求福(1991),「誌石의 形態와 內容」,『百濟武寧王陵』, 百濟文化硏究所.
小島憲之 外 校註(1998),『日本書紀』②, 大日本印刷株式會社.
蘇鎭轍(1998),『金石文으로 본 百濟武寧王의 世界』, 圓光大學校出版局.
劉濤·唐吟方 編(2000),『中國書藝術五千年史』, 다운샘: 서울.
義相 撰(??),『法界圖記叢髓錄』, 高麗大藏經影印本 卷第四十五 所收(2002), 東國譯經院.
李圭甲 編(2000),『高麗大藏經異體字典』, 高麗大藏經硏究所.
李基文(1982),「百濟語 硏究와 關聯된 몇 問題」,『百濟硏究』特輯號, 學硏文化社.
李丙燾(1972),「百濟武寧王陵出土誌石에 대하여」,『學術院論文集』11, 學術院.
李崇寧(1983),「百濟語의 硏究試攷」,『百濟硏究』14, 學硏文化社.
李殷晟(1984),「武寧王陵의 誌石과 元嘉曆法」,『東方學誌』43,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李進熙(1982),「古代 韓日關係史 硏究와 武寧王陵」,『百濟硏究』特輯號, 學硏文化社.
任昌淳(1983),「百濟의 漢文文化」,『百濟硏究』14, 學硏文化社.
張寅成(2000),「武寧王陵 墓誌를 통해 본 百濟人의 生死觀」,『百濟硏究』32, 學硏文化社.
赤井淸美 編(1992),『行草大字典』, 敎育出版社: 서울.
佐竹保子(1984),「百濟武寧王誌石の字跡と中國石刻文字との比較」,『朝鮮學報』111.
周裕興(2002),「南朝文化與百濟」,『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Kalgren, B.(1966),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Cheng-wen publishing company: Taipei.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5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kimyu@uos.ac.kr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Remarks on the Idu of Baeg-je kingdom

Kim Young Wook

It has been a common belief that there were no Idu scripts or sentences in Baeg-je kingdom. But it was not right. The Idu was used during the period of Bae-je kingdom.(at least A.D. 6th~7th centuries). I have confirmed it through decoding rulers' tomb-stones at that time. With the results of my decoding of it, I have found Korean style sentences, which means they had the same word-order as Korean, at the first-half part of the epitaphs of the king's and the queen's who were the rulers of Baeg-je kingdom in Korean peninsular at 6th century. In addition to their word order, I have found several facts of Baeg-je's own expressions in the words and the phrases of the epitaphs of the king's and the queen's.

It has never been known to the academic society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at Mog-gan('scripts on wood') was used during the period of Baeg-je kingdom. I am the first man who introduces it to the academic society. I have decoded it with modern Korean and I have found that it was a kind of Baeg-je people's poetry. So far, it has been a common belief that there are no poetry remained which was written directly by

the people of Baeg-je kingdom. But I have revealed in this study that it was the first original poetry of Baeg-je kingdom and the oldest of all that were known to us.

*Key words: Baeg-je, Idu, the tombstones of King Muryeong, Bu-yeo reong sa('temple'), Mog-gan('scripts on wood'), poetry of Baeg-je